

희망세상 (2007년 1월호 / 52호)

- 발행인 : 함세웅
- 발행일 : 2007년 1월 1일
- 발행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신년사 |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함 세웅



1. 곰의 지혜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인생의 궁극적 존재의미는 무엇일까? 함께 사는 공동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공유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저는 요사이 많은 분들과 함께 단군신화의 교훈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단군신화는 1232년 고려 인조 때 몽고의 침입을 받아 인조는 강화로 피신하고, 개성에 남아있던 승려 일연이 『삼국유사』를 집필하면서 구전으로 전해온 내용을 문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당시 개성에 남아있던 승려 일연은 몽고 기마 군의 약탈과 방화, 부녀자 겁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비참한 광경을 목격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역사의식을 지니는 것이라 확신하며 삼국유사를 집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일연은 폭력을 휘두르는 몽

고군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약하고 가난한 우리 민중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비결을 단군신화를 통해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신화를 연구합니다. 신화는 그 민족의 얼이며 정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군신화에서 민족의 얼과 정신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군신화에는 호랑이와 곰이 등장합니다. 백일을 깊은 동굴에서 마늘과 쑥을 먹고 견디어 낼 때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신화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백두산의 호랑이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곰을 미련한 동물이라고 경시합니다. 그러나 백두산 호랑이는 결국 실패했고 우리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곰이 성공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점은 “빨리 빨리” 그리고 단숨에 이루고자 하는 이른바 한탕주의입니다. 승려 일연은 이점을 간파하고 민족적 치료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선호하더라도 호랑이적 기질을 떨쳐버리고 곰같이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방법만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곰의 지혜, 이것이 바로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비록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에 우리는 많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물론 몽고군의 침략과 약탈은 아니라 하더라도 현상적으로는 그와 흡사한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호랑이적 기질을 이성으로 통제하고 곰과 같이 인내를 가지고 참아 견디는 지혜를 지녀야 합니다. 공동선을 위해 개인의 원의(願意)와 사익을 양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삶에서만 참된 민주주의와 자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고귀한 가치를 위해 숨져간 선열들과 선배, 열사들을 생각하며 곰의 지혜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2. 다섯 돌을 맞이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은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재정권의 모진 압박과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자기희생을 감수하며 피와 땀을 흘린 역정이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미래 역사발전의 정신적 동력으로 되살려 내기 위해 민주화운동을 기념·추모하는 행사와 민주화운동 역사전시회, 민주화운동 사적의 발굴과 복원 등의 기념사업을 전개하여 왔으며, 미래 한국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민주주의 교육 조사 연구, 민주주의 체험 프로그램 등 민주교육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이론적 논의들을 연구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현 단계를 진단하여 향후 민주주의의 모습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 민주화운동사 연구와 연구총서 발간, 학술심포지엄, 민주화운동 사전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등의 연구사업과 함께,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증거이자 유산이며 민주화운동사 정리의 기초 자료가 될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를 수집·정리·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5만여 건의 사료를 수집하여 국내 유일의 민주화운동 사료관을 구축하였고, 자료의 열람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상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회에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고 민주화운동 정신을 오늘의 정신으로 세우는 디딤돌이 될 (가칭)한국민주주의전당 건립사업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전당은 민주화운동기념역사관, 민주주의교육센터, 국제민주센터, 민주주의연구소, 민주화운동사료관 등이 갖추어진 민주주의 발전의 지원 센터이자 거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난 5년 동안 사업회가 민주주의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오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사업회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함께 했던 여러분들의 도움과 참여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업회는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한된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시민참여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민주주의 R&D·통합서비스 기관’으로의 성장

사업회는 설립 5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5년 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 지금까지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유산을 보존하고 연구하며, 그 숭고한 가치를 담은 민주주의 관련 콘텐츠를 대내외적으로 서비스하여 ‘아시아의 대표적 민주주의 R&D·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넘어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사업회의 전 구성원은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하신 분들의 높은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소명의식과 함께 민주주의의 핵심인 인간존중의 가치, 나아가 세계 인류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인류지향의 가치 그리고 국민을 위해 열려있는 사업을 펼쳐나가겠다는 고객중심의 가치를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며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 6월 민주항쟁의 재현으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

올해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많은 이들이 2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정성을 쏟고 때로는 밤을 지새우며 일하고 있습니다. 1987년 불의한 군사정권을 타파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 외쳤던 민중의 함성을 다시 한 번 재현하여, 더욱 성숙해진 민주주의를 이 땅 위에 실현해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어려운 현실을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로 극복하고, 7·80년대 독재정권 타파를 위해 온 몸을 던졌던 선배들과 동료들의 그 열정을 되새기는 노력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열정으로 민주주의의 계승발전과 나아가 민족의 일치와 화해를 모색하는 사색의 장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탕으로 인류 보편의 가치인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민 모두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주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성취를 기억하고 그 소중한 정신을 미래 세대에게 올바르게 물려주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으로 함께 했던 여러분들의 참여와 애정 어린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